전법 일기

싫어하는 사람과 살아가야 하므로

올해 8월 7일부터 10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국제불교 박람회'의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다. 부산국제불교박람회사무국에 따르면, 7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나흘간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박람회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장소가 2배로 늘었고, 참가 부스 또한 전년보다 176곳 증가한 375개 부스로 구성된 박람회는 불교공예, 건축, 의복, 식품, 수행, 문화산업, 차(茶), 전통미술 및 현대미술 등 불교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행사로 이뤄졌다.

특히 스님과 차를 마시며 고민 상담이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스가 부산불교방송 부스에 마련돼 큰 인기를 얻었다. 희망자가 너무 많아 웨이팅 머신을 비치하고 예약을 받았는데, 부산불교방송 특보단 소속 스님들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대로 돌아가며 상담을 진행했다. 나 역시 나흘간의 행사 기간 중 이틀간 상담을 진행하며 박람회에 방문한 불자분들과 청년분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상담 중 유독 많이 들은 고민은 '직장 내 동료들과의 불화'에 대한 것이었다. "회사에서 너무 보기 싫은 상사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나 "진급 경쟁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같은 고민이 많았다.

미운 사람과 직면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당할 때의 고통[원증회고怨憎會苦]이 인간이 겪는 여덟 가지 고통[팔고八苦] 중 하나라고 경전에서도 이야기할 정도이니, 당사자에게는 보통 깊은 고민이 아닐 것이다.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 보수지연분(寶樹池蓮分)에 이르기를, "저 세계를 어째서 극락이라 하는 줄 아느냐? 그곳에 있는 중생들은 아무 괴로움도 없이 오직 즐거움만 있으므로 극락이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같은 경 왕생발원분(往生發願分)에서는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원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그와 같이 으뜸가는 착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본래 모습은 괴로움이 일상다반사이고 즐거운 일은 드문 사바세계이다. 오죽했으면 '고통바다[고해苦海]'라고 표현했을까. 따라서 생각의 출발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내 주변에 싫은 사람, 싫은 일들이 있는 것이 특별히 나쁜 상황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공통의 문제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상사는 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에서 '그 상사도 혹시 나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나'로 생각을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완벽히 조성된 극락세계로 내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으뜸가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사는 세상이 한발 더 극락세계에 가까워진다. 모두가 서로에게 선량한 사람이 되는 극락세계를 이 중생세계에 만들어 보자는 큰 외침이 부처님 말씀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번 불교박람회도 잘 회향하였다.



눌은 스님 전 범어사 포교국장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⑲ 우리 시대의 생태 위기

수단 너머 생태로의 세계관 전환 시급

2025년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다. 역대 최고의 기록들이 잇따라 갱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가뭄과 홍수, 대형 화재와 폭염, 기온 상승과 더불어 야기되는 해수면의 상승 등은 기후 변화 단계를 넘어, 기후 위기를 직접 체감하게 하고 있다. 이 기후 위기의 국면들은 생태계의 교란과 위기로 이어진다.

생태란 생명체들의 다양한 모양과 상태를 뜻하는 'ecology'의 번역이다. 이 말은 중심을 뜻하는 'core'를 에워싼 'envelope'에 대한 이론 또는 진리를 의미하는 'logos'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e-co-logic'에서 도출된 'ecology' 개념은 생명체를 둘러싼 환경을 생태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한다. 이로써 생태와 환경은 동의어가 된다. 즉, 생태적 태도는 지구와 기후에 대한 책임감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개별 생명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생태보살의 책임이 대승보살의 실천과 연결됨을 보여 준다.

지표면이 갑자기 가라앉는 싱크홀은 땅의 요소와 관계가 있다. 폭우와 홍수, 가뭄과 사막화는 물의 요소로 인한 것이다. 대형 산불과 화산 폭발, 기온 상승은 불의 요소로 인한 문제이며, 태풍과 토네이도 등은 바람의 요소로 인한 문제이다. 이렇게 기후 위기의 문제를 지수화풍(地水火風)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요소환원주의적 태도로서 대승적 관점이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문제들을 편의상 분류해 대처하기에 좋지만 폄하적 의미의 소승적 태도일 뿐이다.

〈원각경〉에서는 '깨달음이 뚜렷하고 밝은 까닭에 마음의 청정함이 나타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으로[覺圓明故 顯心清淨 心清淨故]' 궁극에는 '허다한 세계가 청정하기 때문에 마침내 허공을 다하고, 삼세를 두루 감싸기까지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하여 동요하지 않는다[多世界清淨故 盡於虛空 圓裹三世 一切平等 清淨不動]'고 설한다. 보안 보살의 질문으로 시작된 경문은 깨달음에 의지해 마음의 청정성을 보장받고 과거·미래·현재의 삼세까지 감싸라고 권한다. 이러한 태도는 요소환원주의를 너머 그 이상의 생태적 실천을 요구한다.

경제 편의주의, 생태 위기 초래
조급함이 부른 도구주의적 착취
마음 오염 막는 것이 생태 수행

우리 시대의 생태 위기는 하이테크닉에 기반한 과학 기술의 남용과 경제적 착취의 오용에서 비롯됐다. 이제 생태적 질문은 심성이나 불성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즉, 위기의 끝자락에서 인간과 마음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 피해자의 자리에 원인 제공자가 존재한다는 딜레마일 뿐, 다른 문제는 아니다. 이 점에서 선어록의 시선이 재고되는 것이다. 온 세계의 청정은 마음의 청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생태적 선수행의 실천으로는 단지 오염되는 것을 막아[但莫汚染] 내기만 하면 된다!

이를 위해 현재 자리에서 처연히 버티며, 새삼 닦을 필요가 있는가[道不用修]를 물어야 한다. 현대인의 위기는 마음이 오염돼 청정하지 못한 까닭이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온 세계를 도구주의적 입장으로 착취하며 개발한 탓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수단으로 여기는 경제적 편의주의가 처참한 생태 위기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경제란 'eco'에 이어 규범과 가치를 뜻하는 'nomos'를 놓는 자세이다. 'economy'는 가치 체계로 환산하는 태도임을 감안할 때, 도구와 수단의 세계관 너머 생태 'ecology'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돼야 사회 권익 향상된다

8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산재로 세상을 떠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추모재가 봉행됐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 보장은 물론 차별적인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추모재에서 영단에 오른 이들은 올해 근무 현장에서 온열과 산재, 괴롭힘 등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7명의 이주노동자들.

자리를 마련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은 고용허가제를 비롯해 그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현행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에서 종사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고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재고용이나 이직이 불가능하다. 사업장의 고용 편의만 보장된 것이다.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며 인권 유린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행정 조치 변경은 없는 상태다.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벌써 21년째다. 그러나 현실은 20여 년 전과 다르지 않다. 최근 전남의 한 사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괴롭히는 영상이 퍼지며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지만, 현실은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가 겪는 일들은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환경과 인권 의식을 보여 주는 거울이다. 맞물려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전체 노동자의 권익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수십만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받아야만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